

**Panel:** 미국의 귀환?

**Date/Time:** 2015년 4월 28일 (화요일) / 10:15-11:30

**Session Sketch for:**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의 사회 아래 '미국의 귀환?'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플레너리 세션이 진행되었다. 키신저 협회의 조슈아 라모 부회장은 우선, "미국의 현재의 어려움은 현재 상황에 어떤 전략을 도입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보혁명으로 인한 국제질서와 생활의 변화로 '개인'이 전면으로 등장하고, 네트워크가 연결됨으로써 새로운 권력이 창출되었으며, 국가와 회사에 어떻게 힘이 분배되는지는 네트워크 연결성에 의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혁명이 진행되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플랫폼을 형성해 새로운 독점적 힘을 창출하고 있다. 라모는 모전세계 안보 및 지역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이 귀환하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 역시 네트워크 파워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제 전세계는 모든 사건을 실시간으로 자세히 볼 수 있지만 현재의 대응 속도는 늦을 수 밖에 없으므로 전체의 판을 관조하면서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시라큐스대학교 제임스 스타인버그 교수는 "미국의 국력은 미래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힘에 있다"고 보았다. 스타인버그는 "중국의 군사적 역량이 증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의 군사적 역량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면서, 미국은 군사적 역량에서도 우월하다"고 주장하며 "최근 미국이 경제적 측면에서도 회복추세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시스템에 있어서도 최근 2주간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점을 예로 들며, "이러한 기민한 대응력이 미국의 장점"이라고 꼽았다. 또한 그는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책임감(commitment)을 더 크게 느끼면서 결코 떠나지 않고 계속 동맹국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양한 종류의 도전 과제가 있음을 인지하면서 뛰어난 적응력과 이해력을 가져야 하고 보다 장기적 프레임과 시야를 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 The views expressed herein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views of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중요한 문제는 북한으로, 이 역시 장·단기적 관점을 동시에 취하면서 해결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토대학 토코 카주히코 교수는 미국의 귀환과 관련해 특히 미국의 Pivot to Asia 정책이 성공했는지를 집중 거론했다. 그는 미일관계는 잘 진행되고 있다"며 "동중국해의 경우 필리핀과의 관계 개선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토코 교수는 몇 가지 중요한 제안을 했다. 우선 동아시아 지역 국가 간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중국 주도의 AIBB 탄생과 관련하여 이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과연 Pivot to Asia 정책의 성공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다음으로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미어 샤이머 교수의 버퍼역할을 소개하면서, 푸틴의 유라시아 협력정책에 미국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한일관계와 관련, 미국 정부의 위안부에 대한 언급을 지적하였다.

중국 외교부 외교정책자문위원회의 우젠민 대사는 새로운 질서와 변화에 대응하는 것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3 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첫째 오늘날 게임의 법칙은 '개혁'으로, 과거의 세계는 종료되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오늘날의 게임은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게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젠민은 "두 번째로 미국은 중국과 관련해 현 상황을 오판(misjudge)하고 있다"며 미국을 비판했다. 특히 미국이 AIBB 와 관련해 오판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잘못된 행동(misbehavior)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컨대 미국이 다른 국가가 AIBB 에 가입하는 것을 방해한 것은 결국 미국이 3 가지 실책, 즉 게임의 법칙을 잘못 이해했고, 잘못된 판단을 했으며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미국을 비판했다.

AIBB 와 관련해 스타인버그는 "미국과 중국간의 사전대화가 불충분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AIBB 의 투명성, 부패문제 등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우젠민은 "미국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AIBB 에 가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론을 제기해 격론이 벌어졌다. 라모는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봉쇄가 곤란"하므로 '공동진화

\* The views expressed herein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views of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

접근법’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협력의 습관을 강조했다.

토코는 “일본이 AIIB 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개인적 사건으로 일본과 미국이 AIIB 에 참여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 The views expressed herein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views of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